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1. 체전을 밝힐 성화가 점화되자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고, 2. 인기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퍼펄레를 장식했다. 3.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도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5만 관객을 열광시켰다. 대구 | 연합뉴스

대구스타일 '체육인 가을잔치' 점화

대구 전국체전 화려한 개막...7일간 열전 돌입

17개 시도서 45종목·2만4000명 참가
개막식 이명박 대통령 등 5만 관중 열기
싸이·손연재 공연 등 식후행사도 후끈



'맘·뭉·뭉 달구벌에서 하나로!'를 구호로 내건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개회식과 함께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1만8252명)와 임원(5907명)을 합쳐 2만4천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7월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세로 출전하는 시·도가 역대 최다다. 대회 11연패를 노리는 경기도는 1985명으로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꾸렸고, 세종시 선수단은 임원 69명과 선수 145명 등 총 214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참가선수들은 육상과 수영 등 42개 정식 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태권 등 3개 시범 종목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뽐낸다.

코미디언 김원효와 신보라가 진행한 이날 개회식은 '별들과의 만남', '대구의 컬러'를 주제로 한 식전 행사로 시작됐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양궁)와 이용대(배드민턴)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무지개빛 우산 공연이 열기를 더했다. 공식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들과 5만 관중이 지켜본 가운데 참가 선수단이 힘찬 행진을 했다.

선수단 대표로 나선 진재왕-신소영이 공경 경기 선서를 하자 대회 성화가 스타디움에 들어섰다. 성화는 대구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은석(펜싱)과 프로 야구 스타 이승엽(삼성)을 거친 뒤 최종

점화자인 체육 꿈나무 이승불(13)군과 윤나래(15)양에게 건네졌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식후행사. 체조의 손연재와 대구시립무용단의 공연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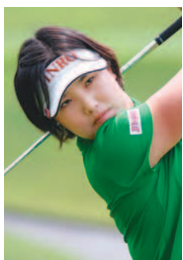
하이라이트는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가 '강남스타일'을 열창할 때였다. 반짝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싸이는 특유의 환상적 퍼포먼스로 좌중을 압도했다. 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중도 모두 기립해 싸이의 열정적인 공연에 화답했고, 다 함께 '말춤'을 추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JLPGA 20승...전미정 인터뷰

“구옥희·박세리 등 전설처럼 KLPGA 투어 영구 시드권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20승을 거두며 KLPGA 투어 영구 시드권을 따낸 전미정(30·진로재팬·사진)이 11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파 72·6546야드)에서 열린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영구 시드권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전미정은 “구옥희와 박세리 선배님, 신지애 등 먼저 영구시드를 획득한 선수들을 보면 내가 감히 이름을 나란히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겸손해 했다.

국내 대회가 12~13개 밖에 열리지 않던 2005년, 좀 더 많은 대회를 뛰기 위해 일본 투어(당시 33개 대회)로 진출했던 전미정은 첫 해만 제외하고 2006년부터 매년 승수를 쌓으며 20승 고지를 밟았다.

전미정은 “첫해는 승수가 없어서 힘들었고, 3년까지는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부터는 큰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투어는 대회 수가 많기 때문에 리듬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연습도 꾸준히 했고, 4년 전부터 형부(김종철 프로)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며 퍼트, 쇼트게임, 드라이버 등 골프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은 것이 20승 달성 비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미정은 이날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18위를 마크했다.

여주 | 원성열 기자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경태가 16번 홀에서 벙커 샷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GT

난코스+강풍...김경태·노승렬·존허 줄줄이 ‘오버맨’

KGT 신한동해오픈 첫날 보기 퍼레이드
120명 중 케빈나 등 언더파 10명도 안돼

‘보기, 더블보기, 트리플보기.’ 까다로운 코스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프로들이 혼란을 겪었다.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 72·7413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 골프투어(KGT) 제28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0억원) 1라운드. 타수를 줄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었다. 더블보기와 트리플보기가 속출했다.

김경태(26·신한금융)는 11번홀까지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하며 3언더파를 쳤다. 그는 12번홀부터 허무하게 무너졌다. 17번

홀까지 6개를 연속보기를 적어냈다. 정교한 샷이 장기간 김경태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노승렬(22·타이틀리스트)과 존허(22)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존허는 버디 1개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모두 4오버파 76타.

베테랑들에게도 힘든 하루였다. PGA투어에서 온 폴 케이시(잉글랜드)와 위창수(40)는 더블보기와 트리플보기에 발목이 잡혔다. 위창수는 1번과 3번홀 버디로 단숨에 선두권으로 나섰지만 5번홀(파3)에서 트리플보기를 적어내면서 3타를 잃었다. 6번홀(파4)에서도 보기를 하는 등 결국 1언더파 71타를 기록했다. 디펜딩 챔피언 폴 케이시는 9번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버디 4개를 뽑아냈지만 9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내며 2타를 까먹어 2언더파(공동 9위)로 경기를 끝냈다. 120명 가운데 1라운드를 언더파로 끝낸 선수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우승 상금 2억원을 차지하기 위해선 ‘3작’을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코스, 강풍,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3위에 오른 케빈 나(29)는 “바람이 많이 불어 공략이 쉽지 않았다. 그린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바람이 변수가 될 것 같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10언더파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7언더파 정도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인천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ang

“김연경 FA 아닌 임대선수” FIVB, 흥국생명 손 들었다

4개월 분쟁 마침표...FA제도 손질 불가피



자유계약(FA)자격 여부를 두고 4개월 이상 이어져온 흥국생명배구단과 김연경(24·사진) 간의 분쟁에서 국제배구연맹(FIVB)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FIVB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김연경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흥국

생명과 협상해야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자신의 신분이 FA라고 주장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 에이전트를 통해 독자적으로 페네르바체(터키)와 2년간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FIVB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계약은 무효가 됐으며, 계약 주체를 흥국생명으로 바꿔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 때문에 13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클럽월드컵피인식 참가도 어려워졌다. 아울러 김연경은 지난 달 대한배구협회 중재로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2년간 페네르바체 선수로 활동한 뒤 국내로 복귀해 2시즌을 더 뛰어야 FA자격(6시즌)을 얻을 수 있다.

●FA 제도 보완 시급

김연경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FA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 FA(여자) 관리규정 3조에 따르면 ‘매 시즌 출장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25%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인정하며, 이 같은 기준조건을 6시즌 충족 시 자격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태는 선수 계약이 주로 1년 단위로 해오던 관행에서 비롯됐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도 이 점을 파고들어 6월30일부로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FA라고 주장했다. 해외 임대 기간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FIVB에서 로컬룰을 인정해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선수의 권리 강화 및 해외 이적시의 규정을 포함한 FA제도 전반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KOVO 관계자는 “프로배구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FA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선수보호 측면과 구단 운영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김종 교수, 칼럼 묶어 ‘스포츠 비즈니스 3.0’ 출간



김종 한양대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최근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는 스포츠 비즈니스에 관한 칼럼을 묶어 ‘스포츠 비즈니스 3.0(일리)’(표지)을 출간했다. 저자가 그동안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 전문지 등 각종 언론에 썼던 칼럼과 기고문을 모은 책이다. 기업 브랜드 인지도 증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 IT산업과 연계해 각종 게임으로 발전하거나 의학·관광 등과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미국 뉴멕시코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내 1호 스포츠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프로야구단 OB(현 두산)에서 근무했다. 또 아시아스포츠산업협회장, 한국야구발전연구원장,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장 등 각종 단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 및 마케팅 전문가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오늘 ‘글로벌 네트워크’ 주제로 스포츠산업포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양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스포츠동아가 후원하는 제63회 스포츠산업포럼이 12일 오후 2시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포츠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 활용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김벌리 포드(NCAA 디렉터), 파비안 림(싱가포르 스포츠위원회 CEO), 짐 스몰(MLB Japan 총재) 등 외국에서 초청한 저명인사 5명이 발제자로 참여해 글로벌 스포츠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 활용을 위한 방향 및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자료집이 제공된다. 사전 등록은 이메일(master@kasipo.com)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는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ip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 하나로 준비 끝!

하나의 상품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무)교보하나로유니버설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 보장은 물론 특약으로 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상품에 대해 무료전화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다.(080-399-0099/www.directlife.com)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드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10호(2012.1.27)